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 하나님      제목 : 계시하시는 하나님

성경 : 로마서 1장 17-25절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평계하지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나리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친승할 이시로다 아멘 (롬 1:17-25)

## 1.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알리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가?

1. 하나님은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커튼 뒤에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진실은 경건한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필요한 것을 계시하신다.

2.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탐구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친분을 쌓고 정을 나누면서 가까워지는豁이다. 그런데 탐구생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자신이 탐구한 양 만큼 모르게 되는 양도 늘어가게 된다. ('야다'와 '예다')

-결국 원리나 철학으로만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다음페이지에서는 모른다는 제목의 페이지를 만나게 된다.

3.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혀갈린다.

4. 우리가 죄악 중에 있다면, 하나님은 어느 기간동안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방치하신다.

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롬1:28)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예다'를 포함하는 '야다'의 방법이다. 왜냐면 끊임없이 마귀가 사람들을 노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계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들에게 엮여 들어가신 것이다. 오로지 '야다'를 통한 계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 2. 만물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부분적 계시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리므로 그들이 평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계시되었다는 뜻. 만물은 하

## 나님의 교과서.

-신성이 만물 속에 내재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만물의 설계도를 보면 그 설계도에 계시된 하나님의 신성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뜻. (플라토닉한 생각과 비슷함. 그러나 만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님. 성경책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듯이.)

-3차원의 세계는 물리적 과학적 가시적 세계. 측정가능한 세계.

-3차원의 세계를 연구하면 3차원의 세계가 저절로 생성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됨. 만물은 순식간에 만들어졌고, 아주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만물 스스로가 증거한다. (사람도 오장육보가 한꺼번에 만들어져야지, 각자 따로 따로 제작되어 조립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과학자들도 결코 만물이 로또에 당첨 되듯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경우의 수가 우연히 일치하여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본다. 만물은 거의 칼 끝에 서있을 정도로 정교하고 치밀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겸허히 만물을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만물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설계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심지어 박테리아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 정보만 해도 백과사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틀림없이 사람에게는 이런 물리적인 정보 외에도 영적인 DNA가 있는데, 정작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자신의 DNA에 대해서 아직도 문외한이니, 사람이 만물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점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사람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가 만물의 설계도를 작성했다고 결론 지을 수 밖에 없다.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평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어렵겠어도 아닌, 분명히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 만물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자연히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마땅한데도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다.

– 오히려 어리석게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깃들여있다고 너무도 간단하게 믿게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한다. 스스로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주제에.

### 3.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1:2)

–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하게 계시하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totality 계시되신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perfect 하게 계시되심.

– 즉, 계시의 방법에서 완전하며(인카네이티드), 역사와 증인과 예언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되었으며, 구원을 위한 완전한 죄 값을 대속하셨으며,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심으로 그 완전성을 이루시고 계신다.

– 다만 하나님의 모든 정보가 온전하게 계시되신 것은 아니다. 왜냐면 1번의 정의

‘1. 하나님은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커튼 뒤에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진실은 경건한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필요한 것을 계시하신다.’  
는 원리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고 성령으로 체험해야 한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인하여 믿음을 주신다.

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눅24:32)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씨앗이 되어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복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10:17)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는 뜻. 즉, 오직 하나님만 궁극적인 의인이시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야다’가 이루어져서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임.

–그러므로 우리는 이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면 하나님을 ‘야다’하게 된다.

–믿음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 <찬양예배>

주제: 영성      제목: 영성의 핵심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13절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13:11-13)

-나의 믿음이 커졌을 때, 이제 나는 영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무엇이 진정한 영성인지, 무엇이 영성의 핵심인지를 알고 체득하게 된다.

-우리가 이처럼 영적으로 체득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영혼은 안정감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영적 죽음이란, 관계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영은 불멸이라, 그러나 관계의 단절이 곧 죽음.

-성령이 아니면 악령과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는 죽이는 영이요, 노략하는 영이라.

영의 특성이 곧 관계.

-영성의 핵심 3가지.

-믿음. 진정한 영성의 문을 여는 키와 같으며, 믿음으로 문이 열리면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됨. 믿음으로 신령한 능력과 은사가 배가되고 확장됨.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풍성해짐.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하

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산을 갖게 됨. –목적이 열정으로 발전하게 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이 강해짐. 그러나 열정 때문에 사람들이  
지치고 상처를 입게 됨.

–사랑. 가장 고급스럽고 강력한 열정은 사랑.  
치유와 해결과 해소, 그리고 살리는 것과 풍성하게 하는 길이 사랑  
임을 실천하게 됨.